

그림 여행



아침 해
(Morning Sun)

에드워드 하퍼
(Edward Hopper 1882 - 1967)

캔버스에 유채 101.98 cm x 71.5 cm
오하이오 컬럼버스 미술관

수년 전 여름이었다.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 휴양지로 여행을 갔다. 절벽이 즐비한 바닷가를 따라 고속도로가 이어졌다. 그 도로가 산속으로 통과하는 곳에 통나무집으로 만든 호텔을 발견해 하룻밤을 묵었다. 세워져야 나무들이 뽀뽀하게 들어선 숲속에 통나무 숙소가 있었고 숙소 밑을 통과해 바다로 내려가는 개울이 밤새도록 팔팔 흘렀다.

자연 속의 삶을 체험하라는 취지에서 숙소에는 TV, 라디오, 전화, 인터넷 같은 것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해가 지자 칙칙같이 캄캄한 숲속에서 통나무집에 앉아 희미한 램프를 켜 놓고 밤을 지내야 했다. 적막하고 무료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문득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여있는 커다란 공책이 눈에 띄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겹표지를 넘기니 하얀 백지에 써 내려간 손글씨가 가득했다. 일종의 방명록 같은 것이었는데 그 방에서 묵고 간 숙박객들이 남기고 간 인사 및 사연들이었다. 계속 페이지를 넘기던 중 수려한 필체로 쓴 사연 하나를 읽게 되었다. 석 장이 넘도록 길게 쓴 글이었다.

필자는 여성이 분명했고 혼자 무언가 마음에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며칠을 묵은 후 떠나기 전날 밤 남긴 글이었다.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실연의 상처가 암시되어 있었다. 외로움, 절망, 슬픔 같은 것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 방에서 떠나보낸다고 썼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 방을 떠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고 진솔하게 써 내려간 글이었다.

에드워드 하퍼의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름날 아침의 고독, 혹은 무료함을 연상한다고 한다. 나는 그날 밤 통나무집에서 읽었던 이름 모를 그 여성의 독백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날을 찾아 아침 해를 보면서 그곳을 떠나갔기를 기원한다.

김동백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호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호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킷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웰컴치과그룹



• 이주영(JustinLee)DDS
• 로마린다 치대 졸업

B B B 만을 고집하는 웰컴치과
Best Price Best Quality Best Service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
실력이면 실력! 모두 자신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웰컴치과는 친절합니다.
명문대 출신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치료해 드립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PPO 및 각종보험 환영

- 메디칼
- 앤섬블루크로스
- 휴메나 골드플러스
- 유나이드 헬스케어(AARP Medicare Advantage)
- 클레버케어
- PPO Insurance



애나하임

714.552.5373

1201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한인타운

213.381.2827

2500 W. 8th St. #106
LA, CA 90057